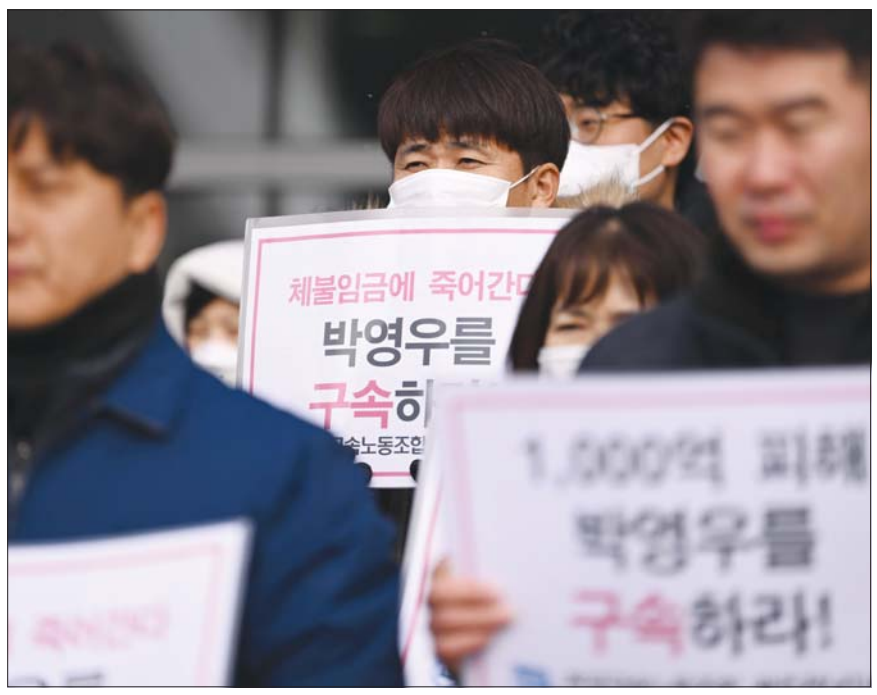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 대응” ‘재감독’ 유형 신설해 기능 강화

고용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체불 피해 50명·금액 10억 이상 사업장엔 특별 근로감독 실시 원칙
이정식 “노동시장 4대가치 확립”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전자·위니아딤채지회가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유위니아 임금체불·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을 향한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고의·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장 대상 ‘재감독’을 신설하고, 임금 체불로 사회적 파장을 부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 정기·수시(기획)·특별 근로감독 외에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해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재차 감독에 나서고, 고의·상습 법 위반이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도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정보통신), 플랫폼 기업과 대형 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하기로 했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 최소화해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을 실한다.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대상은 작년 12월까지 운영한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165건에 대해 지난 1월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소규모 기업과 약자보호를 위해 30인 미만 기업은 ‘청년’, ‘여성’, ‘외국인’, ‘건설현장’ 6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그간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올해 근로감독이 종료된 사업장 약 1000곳에 대해 감독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를 도입한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외국인 근로자 16.5만명 도입 달성할 것”

한국산업인력공단
송출국 기관장 등과 5~7일
‘미래지식포럼·워크숍’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7일까지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에서 필리핀 등 16개 고용허가제 송출국 기관장과 EPS센터 주재원 등을 초청해 ‘EPS센터-송출기관 미래지식포럼·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고용허가제 도입 쿼터가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에 달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운영과 공고한 국외 협력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EPS센터는 중소기업에 16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2004년 시작돼 올해 20주년을 맞는 고용허가제 사업은 국내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E-9)를 지원해, 국내 빈 일자리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는 10만14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고, 제도 시행 이후 누적 96만1347명이 입국했다.

공단은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선발 체계 고도화 △실시간 입국 정보 확인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래지식포럼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적기 선발, 신속 도입,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한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16개 국가를 잇는 고용허가제 국내·외 관계자가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외국인 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EPS 미래지식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지속가능한 고용허가제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담수 미세조류 추출물서 항암 효능 발견

간암 성장·전이 억제효과 확인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5일 담수 미세조류인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 추출물에서 간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chlorella sorokiniana)는 녹조류에 속하는 단세포 미세조류이다. 주로 강이나 호수, 연못 등의 담수에 서식한다. 높은 영양가와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단백질, 오메가-3지방산 등을 함유하고 있다고 자원관은 설명했다. 또 루테인, 엽록소 등의 색소 물질을 비롯해 이소람네틴, 캠퍼롤과 리퀴리티게닌 등의 폴리페놀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조성물 또는 약학 조성물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원관 연구진은 “최근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가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대량배양 기술을 통해 추출물을 다량으로 확보한 후, 항암 효과에 대한 생리활성을 분석한 결과,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 추출물이 간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등 항암 활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자원관이 지난 2021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일환이다. 선문대 식품과학부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담수 미세조류 계통분류 및 유용정보 확보’ 연구를 통해 항암 효능을 확인했으며, 최근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간암 억제 효능이 확인된 국내 서식 담수 미세조류가 향후 간암 치료용 소재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능성 천연소재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안덕근 “1달러라도 더 수출하도록 총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기 반월·시화 산단 방문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 개최
산단 디지털 등 2250억원 투입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수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지원단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수출현장지원단의 세 번째 행선지인 경기도 반월·시화 산단을 방문해 중소·중견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1월 수출 성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반월·시화 산단은 뿌리산업부터 전자·기계·화학 등 주요 업종이 입주한 곳으로 입주기업 수(2만484개사)를 기준으로 국내 최대 산업단지다.

간담회에서는 우리 수출의 36%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마케팅,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 지원책과 함께 전기전자 부품, 바이오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목표 달성의 바로미터인 1월 수출이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수출의 65.7%(2022년 기준)를 담당하는 산업단지가 최근 겪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인력충원 어려움 해소를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수출현장지원단 일행은 산단 입주 기업인 대모 엔지니어링의 건설장비 생산라인을 참관했다. 안 장관은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현장의 끊임없는 혁신이 바로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일반기계 산업이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10개월 연속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공통된 수출 애로사항인 금융·마케팅·해외인증 분야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역대 최대 규모인 87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2조2000억원 규모 수출금융 우대상품도 1분기 내 신설해 본격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송미령,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 상인·관계자들과 현장 청취
‘성모의 마을’ 성금·농축산물 전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오후 충남 논산 화지중앙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내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또 논산 상월면에 위치한 ‘성모의 마을’을 찾아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를 격려하고 성금 및 농·축산 식품 등을 전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시장을 돌아보며 사과, 돼지고기, 쌀 등 설 성수품 및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전통시장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농축산물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현장 환급행사 및 성수품 공급확대 등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송 장관은 이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성모의 마을을 찾았다. 그는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농축산물 등 위문품과 함께 농식품부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과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농식품부는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의 희망나눔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